



## 난중저하현상으로 품목간 수급차이 심화 - 계란보관일수 단축에 따른 품질관리 필요 -

### ◆ 동향

산지 계란유통상황은 원활한 가운데 난중저하 현상에 따른 품목간의 수급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왕,특란은 공급부족으로 강세를 보이는 반면, 대란 이하는 공급량이 많아 약세를 보이고 있다. 7월 들어 이러한 유통변화가 심화되면서 특란가격은 변화가 없는 반면 대란이하 품목의 가격하락이 두차례 이어졌다.

소비자시민모임에서 시행한 계란품질조사결과가 발표되면서 다시 한 번 계란품질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름철 보관일수가 단축되면서 상온에서 유통되는 계란의 품질이 저하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으로 단순 계란생산체계의 문제라기보다 유통과정과 농가 보관창고시설의 미비점을 되짚어 봐야하겠다. 이에 본회는 정부에 보관창고시설 지원자금을 요청하는 등 반복되는 여름철 품질문제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다.

### ◆ 자료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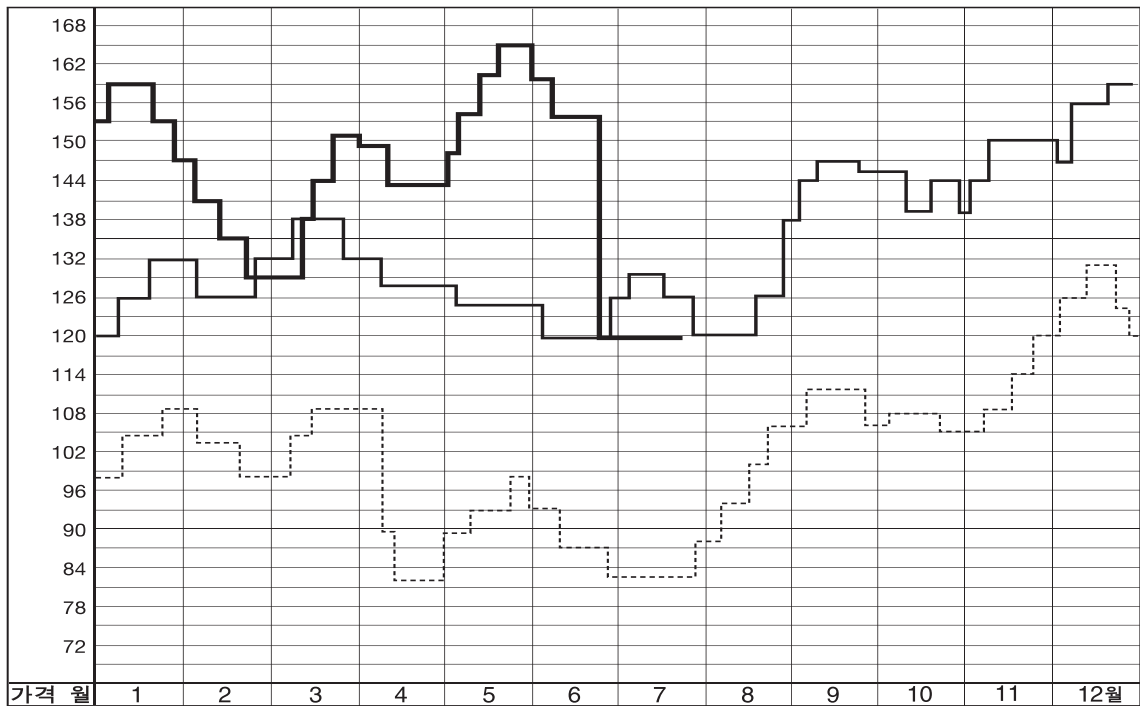
6월 산란종계 입식수는 71,300천수가 입식되었으며, 전년대비 25.3% 감소하였다. 평소 산란종계는 유색품종에 집중되었으나 지난달 데칼브 백색종이 입식되었다. 같은달 산란실용계는 2,956천수가 분양되어 전년대비 3%가 감소하였으며, 금년 3/4분기 계란생산에 영향을 미칠 1/4분기 실용계입식수는 전년대비 3.3%증가하였다.

6월 가축통계에 따르면 산란계 사육수수는 61,143천수로 전년대비 28.4% 증가하였다. 닭사육가구수 또한 전년대비 4,238가구로 전년대비 12.7% 증가하였다. 올 상반기 양계산물 시세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 양계사육가구수가 급증한 것으로 판단된다.

### ◆ 전망

8월은 여름방학으로 인한 급식수요 감소로 유통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고된다. 특히 산란실용계 사육수수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사료생산실적 감소 등으로 사육수의 감소가 예상되었으나 오히려 전년대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가경영 부채가 늘어나면서 상당농가에서 노계를 출하하기보다는 생산기간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산란계군 증가에 따른 생산량 증가가 불가피한 가운데 난가는 원가선을 밑돌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중남부지역에 내린 호우로 인한 과채류 작황부진으로 과채류가격이 오를 경우 계란대체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난가가 소폭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할인매장에서도 비수기 판촉행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돼 체화물량을 소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수도권 난가는 7월과 비슷한 수준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혹서기 난중저하로 인해 큰알 부족이 심화되면서 특란과 대란이하 품목의 가격차이가 더욱 커지겠으며, 이러한 현상은 월말까지 지속되겠다. 본격적인 혹서기에 앞서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계사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다.



※ 2007.4.7 계란가격 현실화 차원 D/C폭 20원 줄임  
 ※ 2009.6.22 계란가격 현실화 차원 D/C폭 30원 줄임

특란기준 계란가격(개당)

2007-- 2008-- 2009--

▶ 병아리 · 사료 · 계란생산(잠재력) 및 가격

월	연도	종 계 입식수 (수수)	실용계 생산수 (천수)	사료(천톤)		산란 실용계 (원)	서울 특란가격 (10개/원)
				육추	산란		
1	2006	39,150	2,050	20.4	168.4	1,050	973
	2007	39,300	2,592	24.6	176.5	1,142	1,035
	2008	55,000	2,857	28.3	176.2	1,050	1,262
	2009	0	2,895	22.6	163.9	1,050	1,553
2	2006	14,000	2,654	19.8	151.8	1,050	894
	2007	25,600	2,188	23.7	157.1	1,150	1,025
	2008	35,928	2,787	26.9	169.8	1,100	1,287
	2009	48,300	2,894	20.1	144.5	1,050	1,374
3	2006	0	2,752	23.2	171.9	1,050	1,020
	2007	68,000	2,461	24.2	168.0	1,150	1,054
	2008	43,100	3,151	24.8	162.3	1,100	1,349
	2009	43,500	3,294	25.1	168.1	994	1,420
4	2006	36,000	2,288	25.8	159.2	1,050	1,025
	2007	62,500	2,581	25.7	158.9	1,150	867
	2008	0	3,469	29.6	170.2	1,100	1,283
	2009	109,368	2,808	27.2	164.5	917	1,455
5	2006	48,500	2,637	29.1	165.2	1,050	1,031
	2007	15,000	2,454	28.4	172.8	1,094	936
	2008	91,100	3,460	27.7	149.3	1,122	1,237
	2009	0	2,519	26.5	157.5	850	1,597
6	2006	52,000	2,523	28.0	162.7	1,056	1,062
	2007	0	2,194	25.6	150.1	1,050	891
	2008	95,500	3,046	28.3	145.8	1,100	1,202
	2009	71,300	2,956			892	1,448

※2008년 1월부터 종계입식수에 브라온크 포함.

※2008년 4월 산란총계는 32,600수 분량이었으나 AI 위험지역에 포함되어 전량 살처분됨.

7	2006	33,000	2,390	25.1	154.8	1,139	1,100
	2007	30,500	2,486	26.3	148.3	1,022	824
	2008	60,500	3,077	29.3	146.7	1,100	1,255
	2009						
8	2006	34,820	2,693	24.7	156.6	1,150	1,148
	2007	49,300	2,493	24.0	153.9	1,000	973
	2008	79,000	2,985	27.0	138.9	1,069	1,245
	2009						
9	2006	31,700	2,508	25.7	170.5	1,188	1,265
	2007	96,400	2,494	24.2	157.2	1,000	1,110
	2008	18,000	2,682	28.5	156.8	1,050	1,468
	2009						
10	2006	59,500	2,415	27.8	163.5	1,200	1,134
	2007	23,200	3,039	27.3	164.2	1,028	1,069
	2008	39,000	2,473	29.4	164.9	1,050	1,430
	2009						
11	2006	50,000	2,311	26.1	160.7	1,200	1,097
	2007	29,760	2,709	28.0	163.1	1,050	1,126
	2008	37,000	2,240	24.3	152.2	1,050	1,482
	2009						
12	2006	30,000	2,351	26.3	165.2	1,194	1,012
	2007	10,200	2,236	28.9	175.1	1,050	1,254
	2008	30,000	3,069	25.4	178.1	1,050	1,536
	2009						
계	2006	428,670	29,572	302.1	1,950.8	1,115	1,003
	2007	449,760	29,838	311.6	1,945.7	1,074	1,014
	2008	584,128	35,296	329.5	1,911.2	1,078	1,336
	2009						